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국제학술대회 '지질유산 전문가 워크숍'

“서식 생물 다양... 獨 바덴해 갯벌의 4배”

대형 저서생물만 717종... 생태적 가치 커 특색한 해양문화 지녀 등재 가능성 높아

신안 등 국내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독일 바덴해(Wadden Sea) 갯벌보다 4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남해안 갯벌의 생물종이 바덴해 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해양문화를 지니고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문화재청과 전남도, 신안군 공동 주최로 14~15일 영암 목포현대호텔에서 열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인 지질유산 전문가 워크숍(Geo-heritage Workshop)에서 보고됐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전문가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산하 전문가 회의인 이번 워크숍에는 이브라임 코무 유네스코 국제지질공원네트워크 부총장, 그레메 보르보이스 IUCN 소속 자문관, 우경식

국제동물연맹회장 등 지질학 관련 저명한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전승수 전남대 교수는 “바덴해 간석지가 중간 조수로 형성된 데 반해 한국의 모든 간석지는 대형 조수로 형성된 것이었다는 점”이 이들 갯벌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간석지를 형성 요인에 따라 개방해안·만·하구·하구 삼각주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면 “한국 남서부 지역 섬들 주변에 분포한 간석지는 이 네 가지 특징을 모두 나타내며, 이들은 적어도 기원전 9000년 전 이전에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바덴해 갯벌은 개방해안 유형이라는 것이다.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준비위원회 제종길 도시와자연연구소장은 “한국 갯벌의 생태적 중



15일 목포현대호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자연보전연맹 전문가 회의인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인 지질유산 전문가 워크숍에서 국내 갯벌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집중 논의됐다. <전남도 제공>

요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갯벌은 많은 하구 주변에 발달해 생태적 가치가 크다”면서 “서식하는 대형 저서(底棲) 생물종만 해도 717종으로 바덴해 갯벌 168종의 4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제 소장은 한국 갯벌은 해안가

주민들이 독특한 갯벌 해양문화를 만들어 낸 점도 독일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회의에서는 이브라임 코무 부총장과 그레메 보르보이스 자문관, 우경식 국제동물연맹회장 등도 나서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교육·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문화재청, 신안군, 전문가와의 협력해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민 전국서 가장 건강

16개 시·도 평가... 건강지수 3년 연속 1위

광주시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건강수준이 높은 도시'로 선정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료컨설팅 전문기관인 엘리오엔컴퍼니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지수 평가에서 광주시가 건강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건강성과 질병 예방, 의료효율성, 의료공급체계 등 4개 분야를 포함해 총 25개 지표를 심사했으며 광주시는 종합 건강지수가 가장 높은 77.5점을 기록했다. 울산이 76.4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전(76.3), 서울(68.1), 대구(66.3) 등의 순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와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제 등 지역행복공동체 구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

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한방·무료건강 상담병원제를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야간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공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타 지자체 보다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심뇌혈관 예방과 당뇨 합병증 관리, 암환자 관리,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사업도 눈에 띄었다.

김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 전국 건강랭킹 1위 도시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건강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광주형 행복 건강복지모델 사업을 통해 150만 시민의 건강 복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금남로·광천터미널·푸른길공원·개나리 어린이공원

광주人本디자인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광주시는 정체성이 담긴 도시디자인(人本)디자인 시범사업대상지로 4곳을 선정했다.

광주시가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인권·평화의 인본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본디자인 시범거리 및 공원 조성사업 '생활정주지역' 대상지로 금남로와 광천터미널, 푸른길공원(남구 양림동~진월동), 개나리 어린이공원(북구 문흥동)이 선정됐다.

이들 4곳에는 보행자, 자전거, 유모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분리하고 보도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CC(폐쇄회로)TV와 조명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관광문화지역 대상지로는 금남로와 화동동 U대회 선수촌 일대가 선정됐다.

이곳에는 다국어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내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거점 통합안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통제 불능”



아베 발언 또 부정... 日 민주당 “총리 책임문제 있다”

도쿄전력 측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유출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2년 가까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和彦) 도쿄전력 연구원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지금 상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야마시타 연구원이 이날 후쿠시마 마츠타 고리야마(郡山)시에서 열린 민주당 ‘원자력발전소사고에 관한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야마시타 연구원은 임원급 연구원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廢爐)를 위한 장기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의 언급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달 7일 국제원자력위원회(IOC) 총회에서 한 발언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사실을 호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발언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지겠다는 태도다. 오하타 아키히로 민주당 간사장은 “총리의 책임문제도 있다”며 “입시국회 소집을 앞둔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방사성 물질의 영향은 발전소의 항만 내에 머

물려 있다”고 맞섰다.

도쿄전력은 미국에서 초빙한 페로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염수·탱크 대책본부의 사외 전문가로 초빙된 레이크 배릿 씨는 12일 후쿠시마 원전을 살펴본 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유출된 탱크에서 북쪽으로 약 20m 떨어진 관측용 우물에서 채취한 지하수에서 1ℓ 당 13만Bq(벵퀸) (법정 한도 6만Bq)의 삼중수소(트리튬)가 확인됐다고 밝혀 우려를 가중했다. 파문이 커지자 아베 총리는 오는 19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 시찰할지를 검토 중이다.

또한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 ‘해양 모니터링에 관한 검토회의’의 한 보고에서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1.3km 떨어진 해역에서 측정된 방사성 세슘 등의 농도를 실험체보다 리터당 ‘몇 벵퀸’ 가량 낮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전남산 수산물 “안전” 오늘 목포서 소비촉진행사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자 전남도가 16일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시식회 등 소비 촉진행사를 갖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짐에 따라 소비촉진과 어업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시식회에는 박준영 전남지사, 손재

학 해양수산부차관, 김재주 전남도회의장, 정종득 목포시장, 목포와 신안수협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소비자단체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다.

이들은 조기, 전어 등 생선구이와 우럭 맑은 탕 등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직접 시식하며 전남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릴 계획이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새정치경제아카데미 3기모집에 초대합니다

국내 최고의 정치명문학교 <새정치경제아카데미>가 광주전남에 새 희망을 불어일으킬 3기를 모집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는 국민에게 헌신하는 자세, 실력, 준비를 갖춘 공인을 찾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1기와 2기의 교육에서 수강생의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과 국내최고의 강사진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기과정은 검증되고 정선된 커리큘럼과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로 여러분의 성공을 도울 것입니다.

원장 정진욱

강의일정

- 10.10_ 개강 초청특강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
- 10.17_ 공직성 교수(조선대 정치과) “정치란 무엇인가”
- 10.19 ~20_ 1박2일 합숙 입두만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사본 ‘새정치’ 의 전망” 김대현 사무총장(아카데미) “선거 전략가의 비밀노트”
- 10.24_ 김남수 대표(한백리서치) “선거와 여론조사”
- 10.31_ 정진욱 원장(아카데미) “정치가의 성공조건”
- 11.7 _ 최재용 원장(SNS전략연구소) “SNS를 활용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전략”

- 11.14_ 박창기 대표(혁신하러한국경제) 저서 “한국경제가 사는 길은?”
- 11.21_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한국정당의 정책과 정책적 과제”
- 11.28_ 케빈 리 교수(명지대, 디메이트지도자협회 회장) “토론에서 이기는 법”
- 12.5 _ 정병준 보도국장(KBS광주) “선거와 홍보전략”
- 12.12_ 이상석 사무처장(행의정 감시연대) “예산을 읽는 법”
- 12.14_ 졸업식(발표) 및 졸업특강 이원재 소장(전한겨레경제연구소장) “새로운 정치와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매주목요일 수업이며, 강의일정과 교수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이사진

- 고문 | 최영관 - 전 광주YMCA이사장
- 최협 -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장
- 임학백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사장 | 조경관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상임이사 | 이용빈 - 의사
- 원장 | 정진욱 - (주)황금씨앗 대표이사
- 사무총장 | 김대현 - 전 국회의원 보좌관

이 사

- 강경식 - 광주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
- 김경진 -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 김길수 -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김동채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 김범태 -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 상임대표
- 김영록 - 세무사
- 김윤 - 희망코리아정치연대 공동대표
- 김태훈 - 전 북구의회 의장
- 류재한 - 전남대학교 불문과 교수
- 민형배 - 광산구청장
- 박두규 - 백운산지기 시민행동 대표
- 박재호 - (주)자연과미래 대표
- 박선희 - 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회장
- 박인화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 박종 - 아이퍼스트 아동병원 병원장
- 서삼석 - 전 무안군수
- 서일용 - 전 전남도의원
- 서정성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
- 윤병철 -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이개호 - F1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이명철 - (주)기담대표
- 이민태 - 한중사상연구원 원장
- 이병훈 -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 이정남 - 전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 임우진 -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 유두석 - 전 장성군수
- 정순남 -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 정용식 - 광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 정희곤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
- 조민 -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 조운기 - (주)넥스트 CEO이사
- 주경철 - kcj 에너지 대표
- 진대영 - 노무사
- 최영호 - 남구청장
- 최원일 - 전 청와대 행정관